

부가세 납부기한 늦추고 간이과세 적용대상 늘린다

■국세청, 소상공인 민생 지원 종합대책 발표

10억원 미만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 유예 조기환급 6일 앞당겨…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도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장려금도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명의 올해 부가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8개 업종으로, 지난해 1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축소해 영세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오는 7월 확대할 계획이다.

도심 일부 전통시장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돼 매출 규모가 영세한 상

인이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부가세 환급은 법정 기한보다 조기환급은 6일,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겨 자금경색으로 인한 어려움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법정기한인 10월 1일부터 한 달 앞당긴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각 세무서에 납세소통전담반을 신설하

고, 수집한 불편 사항을 본청·지방청의 납세소통지원단이 정례회의를 통해 논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2020년 이후 폐업 소상공인 약 7만명에 게 지급한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한 소득세 107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는 영세사업자 기준으로 현황 0.5~0.8%에서 0.15~0.4%로 인하한다. 지난해부터 적용 중으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실태 조사를 거쳐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

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는 납부 의무를 없애주고, 중고·저가 차량 등에 걸려 있는 실의 없는 압류도 적극 해제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남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대책을 설명했다.

상인들은 신고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세무상담 확대, 전통시장 상인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예정고지 기준금액(세액 50만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로보틱스 모멘텀’ 현대차 14% 급등…그룹주 동반 상승

코스피 사상 최고 찍고 숨 고르기 ‘4551.06’ 삼성전자·SK하이닉스 장중 연일 신고가 경신

현대차가 7일 ‘로보틱스 모멘텀’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14% 가까이 급등하고 현대차그룹주도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현대차는 전장보다 13.80% 오른 35만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기아도 5.55% 상승한 12만9300원, 현대모비스는 7.24% 올라 39만2500원을 기록했다.

현대모터에버도 상한가에 가까운 26.44% 오른 39만4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5.58p(0.57%) 오른 4551.06에 장을 마치고 전 날 기록한 사상 최고치(4525.48)를 제차 경신했다.

직전 거래일보다 40.86p(0.90%) 오른 4566.34로 출발해 상승 흐름을 잡아 장

초반에는 무려 4611.72를 찍어 46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등락을 반복, 장 후반 오름세로 돌아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어제는 반대로 외국인이 1조2516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938억원, 9395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상단을 제한했다.

외국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선물시장에서는 4402억원 매도를 나타냈다.

장 초반 국내 증시는 간밤 뉴욕증시 강세에 힘입어 상승폭을 키우는 흐름을 보였다.

앞서 뉴욕증시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 기술 전시회 ‘CES 2026’에서 주요 기술



기업들이 앞다퉈 인공지능(AI) 로드맵을 선보이자 기대감에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젠스홀 최고경영자(CEO)가 가조연설에서 향후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자 기술주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2.75%)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에 국내 증시도 장 초반 대형 반도체

주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며 4600선 벽마저 넘었다.

8일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기대감 또한 주가를 밀어 올렸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다는 소식에 동아시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기관의 매물이 대거 출회하면서 증시는 상승폭을 줄이기 시작했다.

이중용도 물자에는 희토류와 반도체 소재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 필수적이면서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품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가 1.51% 올라 14만1000원으로 마무리하고, SK하이닉스도 역대 처음으로 76만원대를 터치 후 2.20% 상승한 74만2000원에 마감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8.58p(0.90%) 내린 947.39를 나타냈다.

원재우 기자 djawodyd031@gwangnam.co.kr

과기부, 통신사 공동주택 전기료 실태 조사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 무단사용 관행…미납분 정산·보상 추진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에 들어가는 공용 전기 비용을 통신사 대신 주민들이 내고 있던 불합리가 2013년에 이어 재차 지적되면서 정부가 전수 조사와 통신 사업자의 비용 보상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7일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용 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돼 있지만, 그간 일부 공동주택에서 공용 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기료 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KT, SKB, LGU+, LG헬로비전 등 인터넷 사업자와

대책반을 꾸려 서울, 인천, 수원, 김포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조사를 벌였다.

전수 조사에는 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참여하며 조사 대상은 14만4천개소(사업자별 중복 포함)다.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통신사업자는 입주민이 부담해온 공용전기료를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해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등 조치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건물주, 층주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동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 전담 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연합뉴스

■ 2026 CES 빛내는 광주·전남 지역기업

광주 28개사 화상 개관식…“새로운 혁신 창출”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 개막과 함께 광주시가 지역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일 ‘광주공동관’을 공식 개관했다.

광주시는 CES 2026이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광주공동관을 조성하고, 7일 오전(현지시간 6일 오후)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개관식을 열었다. 개관식은 CES 현장과 광주시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온라인으로 참여했으며, 현지에서는 이시완 엘비에스테크 대표, 최기훈 이노디테크 부장 등 참가 기업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또 차현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부장, 김장수 에이플러스 대표, 김덕수 아우토크립토 대표,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호남대학교 이은경 교수와 학생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이탈리아 무역진흥청(ITA) 관계자 등 글로벌 파트너들도 개관식에 참여해 광주 기업들의 기술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개관식에서는 CES 2026에 참가한 기업들이 직접 자사 기술과 비전을 소개하며 각오를 밝혔고, 국내에서는 화상 연결을 통해 현장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참가 기업들을 응원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지역 기업의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어느 지체보다 진심을 담아 CES에 임하고 있다”며 “매년 CES 참여를 통해 쌓아온 경험과 성과가 광주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미래 기술의 현장에서 기업의 성장과 광주 산업의 미래를 깊이 고민하며 새로운 혁신 성과를 창출해 달라”고 당



광주시는 CES 2026이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광주공동관을 조성하고, 7일 오전(현지시간 6일 오후)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개관식을 열었다.

시, 혁신상·비즈니스·수출 패키지 지원 등 강화 미래 모빌리티 기술·AI 중심도시' 위상 부각

부했다.

올해 CES 2026의 주제는 ‘혁신가들의 등장(Innovators Show up)’으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 부상 속에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CES 2026에는 광주시 지원기업 17개사를 포함해 총 28개의 지역 혁신기업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13개사는 광주공동관에서, 4개사는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K-Startup 통합관에서 기술력을 선보인다. 참가 기업들은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며 ‘AI 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해외 판로 개척과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광주공동관은 베네시안엑스포 2층 글

로벌 파빌리온에 위치했으며, K-Startup 통합관은 1층 윌레카파크에 마련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CES 혁신상 지원,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교육, 후속 수출 연계로 이어지는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해왔다.

이곳에서는 CES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엘비에스테크가 AI 기반 접근성 설계 시스템 ‘마스브릿지’를 선보이며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노디테크는 AI 치아교정 솔루션으로 국내 업계 최초 혁신상 수상 성과를 거뒀고, 올더타임은 인간안보 가치를 구현한 ‘더 가이드’ 기술력을 공개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미국 기업과 협력 등 ‘기술 전남’ 존재감 과시

전남 기업들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겨냥한 계약과 기술 협력, 혁신상 수상 성과를 잇따라 내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단순 전시를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거두며 ‘기술 전남’의 존재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에서 CES 2026 전남관 개관식을 열고, 도내 유망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였다.

개관식에는 신원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을 비롯해 라스베이거스 시의원, 현지 한인사회 대표, 해외 바이어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전남 기업들의 기술력과 산업 확장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CES에서 가장 주목받은 성과는 미국 시장을 겨냥한 실질적 협력이다. AI 재난감지 솔루션 기업 ㈜아이아이에스티(IIST)는 미국 퍼시픽 테크 앤 이노베이션(Pacific Tech and Innovation Inc.)과 북미 시장 진출 및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지 공공 안전 시장을 겨냥한 기술 협력과 마케팅·운영 분야 협력이 핵심으로, 전남 AI 기술이 북미 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크다.

기술 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혁신상 수상으로도 이어졌다. ㈜아이아이에스티(재난감지), ㈜터빈크루(에너지), (주)뉴작(XR), (주)고려오토론(반도체) 등 전 남 기업 4곳이 총 5개의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데이터와 AI를 중심으로 한 전남 산업 생태계가 글로벌 기준에서도



전남도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에서 CES 2026 전남관 개관식을 열고, 도내 유망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였다.

솔라시도, 글로벌 데이터·에너지 허브 육성 속도 바이어 등 60여명 참석…산업 확장 가능성 관심

경쟁력을 갖춰왔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

은 셈이다. 국제 교류 성과도 눈에 띈다. 전남도와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은 미국 오리건주 정부 및 기술협회 관계자, 현지 기업 10여 곳이 전남관 개관식에 참석해 전남 참가 기업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일부 기업은 후속 협력 논의로까지 이어지며, 장기적인 기술·산업 파트너십 가능성을 넓혔다.

신원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CES 성과는 전남 기업의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솔라시도 기업도 시에 조성 중인 데이터센터와 RE100 산

업단지를 기반으로 더 많은 전남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CES를 계기로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글로벌 데이터·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전략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4GW급 전력망 구축 여건과 신속한 인허가 체계 등 솔라시도의 투자 환경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CES 2026 전남관에는 총 12개 기업이 참여해 ‘Innovator show up(혁신가들이 등장했다)’라는 CES 공식 주제에 맞춰 데이터·AI 기반의 미래형 첨단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